

광주일보

Weekend

가요계로 진출하는 개그맨들이 늘고 있다.
과거 개그맨들이 크리스마스 캐럴이나 특정 이벤트를 거쳐 앨범 발매를
했던 것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곡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가요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개그맨 못말리는 끼 가요계서 놀아 볼까



앨범 발표 잇따르며 가수 데뷔

가요순위 상위권 차지 눈길도



“닥터피쉬” 유세윤(오른쪽)과 이종호.

제18186호 2판

2008년 10월 11일 토요일

KBS 코미디프로그램인 ‘개코너’(이하 ‘개콘’)의 인기 코너였던 ‘닥터피쉬’에서 동명 타이틀의 록 밴드로 분해 사랑을 받았던 유세윤은 지난 2일 또 다른 멤버인 이종호와 함께 ‘닥터피쉬’라는 팀명 그대로 디지털 앨범을 발표, 가수로 정식 데뷔했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당겨’를 비롯해 ‘개콘’에서 ‘닥터피쉬’가 선보였던 곡들 중 반응이 좋았던 10곡을 편곡해 보너스 트랙으로 담았다. 특히 ‘개콘’에서 활동 중인 이태선 밴드의 이태선 교수와 ‘눈사람’ ‘게임의 여왕’ 등의 OST에 참여한 이제현이 공동으로 앨범 프로듀싱에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개콘’의 ‘버퍼링스’ 코너를 통해 인기를 얻었던 엄경천, 안윤상도 앨범 발매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이들은 ‘개그맨’ ‘씬’(Scene) 모두 7곡이 수록될 이번 디지털 앨범에 적·간접으로 참여해 앨범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가요 프로그램에서 라이브를 선보이기 위해 6개월 동안 보컬 트레이닝을 받

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버퍼링스’의 앨범은 후반 작업을 모두 마친 상태이며, 이달 안에 UCC를 통해 앨범 발매를 알리는 쇼케이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콘’의 간판코너인 ‘봉승아 학당’에서 스타들을 향해 토해내는 거침없는 독설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왕비호’ 윤형빈은 지난 7월 ‘오백액션’이라는 록밴드를 결성, 가수로 활동중이다.

이 밴드에는 윤형빈 말고도 ‘개콘-조선왕조 부록’의 김준현(기타)과 ‘폭소클럽(KBS)-화나지니’의 김영민(베이스)도 함께하고 있다.

‘왕비호’ 프로젝트란 디지털 싱글 앨범에는 ‘Run Run Run’과 ‘개같이 별자’ 등의 록음악들이 수록됐으며 모두 김영민이 작사·작곡, 윤형빈이 프로듀싱했다.

현재 이들은 일주일에 2~3번 노래 연습을 하고 있으며 홀대 부근 클럽 ‘사운드 힐릭’에서 정기 공연 중이다. 올해 안에 두 번째 싱글 앨범을 발매할 계획도 갖고 있다.

개그맨 김재우, 김경우, 김태환으로 구성된 ‘나몰라 패밀리’는 지난 8월 발매한 디지털 싱글 앨범 ‘사랑이 그 량게 쉬워’가 각종 온라인 가요순위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음원 공개 한 달 만인 지난 9월에는 싸이월드 실시간 차트와 소리바다 오늘의 차트에서 빅뱅에 이어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나몰라’로 가요계에 첫발을 내디딘 지금까지 모두 6장의 앨범을 내며 가수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또 쌍둥이 개그우먼 강주희·승희 자매는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게 됐다.

그동안 ‘개콘’ ‘폭소클럽’(KBS) 등에서 성대모사를 통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이들은 트로트 가수가 되기 위해 약 1년간의 보컬트레이닝과 준비기간을 거쳤으며 “가수로 성공하기 전까지 개그는 안 하겠다”며 가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光州日報

광주시 동구 금남로 224 20-2(501-711)

회장 許宰皓
시장 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대표전화 2200-551-222-8111
(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판권국내 경영자인국 2200-511

대표팩스 222-4918
(팩스 222-8005)

편집부 2200-629 광고마케팅국

정치부 2200-616 2200-521

경제부 2200-617 <팩스 227-9500>

사회부 2200-618 디자인 2200-536

<팩스 222-4267> 문화홍보국 2200-541

사회부 2200-619 <팩스 222-0195>

문화생활부 2200-626 2200-551

여론매체부 2200-628 <팩스 227-9500>

체육팀 2200-627 서울지사

시진부 2200-690 02-773-9331

조사부 2200-570 <팩스 02-773-9335>

구독료 월 10,000원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자1(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가장 애절한 발라드 부른 가수는? 신·승·훈

“객관식 아닌 주관식 가수 되고 싶었다”

유재하의 1집에 반해 작곡을 시작했고 그의 기일인 1990년 11월 1일 데뷔한 싱어송러이자 신승훈은 18년간 가요계에서 ‘기록의 사나이’로 불렸다.

음반 7장 연속 밀리언셀러, 10집까지 총 판매량 1천500만장, 수상 트로피 700여개, 공연 횟수 700여 회, 10년간 1위를 가장 많이 한 가수·작곡자, 술한 제의에도 CF 출연 0번.

그의 장수비결은 아름하고 애절한 멜로디에 김소월의 정서인 ‘애이불비(哀而不悲)’를

바탕으로 사랑·이별·슬픔을 노랫말에 담았고, 비음이 섞인 미성을 가미해 팬들의 공감을 얻어냈기 때문이다.

그가 11집 음악의 맘보기로 세상의 미니음반을 잇따라 발표하는 프로젝트 ‘언의스펙터드 트위스트(Unexpected Twist)’의 첫번째 미니음반 ‘라디오 웨이브(Radio Wave)’를 발표했다.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 가수가 되고 싶었다”는 다. 가장 애절한 발라드를 부른 가수?라는

주관식 질문에 신승훈이라는 답이 나오도록 18년간 밤마다 노래했다. 오래 전부터 어느 시점에 음악적인 변화를 주려 준비했다. 굵직한 터닝 포인트가 결혼이 아닌, 10집이라고 생각했다.”

자작곡 6곡이 수록된 첫 미니음반은 신승훈의 주중복과 장점을 배제하고 만들어 확실히 변화가 감지된다.

타이틀곡 ‘라디오를 켜봐요’는 도입부의 발라드적인 멜로디에서 후렴구 복적인 사운드가 어우러져 음악적인 반전을 강하게 표현했다.

“아차피 저를 있게 해준 음악세계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스타일의 발라드로 돌아가야죠. 지금은 기존 음악 장르의 파괴가 아니라 제 안의 음악적인 틀, 사고를 깨는 과정일 뿐입니다.”

/연합뉴스

법원경매전문

GG경매컨설팅(주)

(법원 경매입찰장 옆)

☎ 062-226-0047

H·P 010-3895-7800

명석한 권리분석, 명쾌한 명도,
명확한 수익성 분석에 의한 재테크 전문상담

▶아파트/빌라

▶원룸/상가주택/오피스텔

▶상가건물/모텔

▶주택

▶토지/공장

▶소송

▶증권

▶보험

▶부동산

▶기타

▶기타